

남도 야구명가 후예들 프로무대 누빈다



광주일고 채지선



광주일고 송동욱



광주일고 정다운



동성고 방건우



동성고 김민혁



화순고 김정인

광주일고 채지선 등 7명 두산·KT·넥센·NC에 지명
화순고 김정인 넥센 입단, SK 김정빈과 마운드 형제 대결

2015 프로야구 신인 2차 드래프트

‘믿고 쓰는’ 호남파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2015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광주·전남의 유망주 7명이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광주일고가 투수 채지선(두산)·포수 송동욱(NC)·내야수 정다운(kt) 등 세 명의 프로선수를 배출했고, 광주 동성고 4번타자 김민혁과 에이스 방건우도 두산 선수로 프로 무대를 누리게 됐다. 순천 효천고의 안방마님 김만수와 화순고 에이스 김정인은 각각 kt와 넥센의 미래가 됐다.

양외지(진흥고)·이원석·최주환·윤명준(이상 동성고), 허경민(광주일고) 등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은 이번에도 광주 선수들을 씩씩이했다.

두산은 1라운드에서 147km를 던지는 강속구 투수이자 타격 센스를 동시에 갖춘 광주일고 채지선(우투좌타)을 선택한 뒤, 2라운드에서는 광주 동성고의 거포 김민혁(우투우타)의 이름을 불렀다. 김민혁은 189cm·96kg의 타고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차세대 거포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다.

4라운드에서도 안정된 제구를 보유한 동성고 에이스 방건우(우투우타)를 낙점하면서 3명의 광주출신 선수가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됐다. 두산은 지난해에는 동성고를 졸업한 원광대 문진제와 광주일고 내야수 정기훈·투수 문지훈(고려대 진학)을 선택했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두 포수도 프로에서 마스크를 쓰게 됐다. 광주일고의 안방마님이자 주장인 송동욱(우투우타)은 3라운드에서 NC의 호명을 받았다. 효천고의 만능 포수 김만수(우투우타)도 신생팀 kt에서 새출발을 하게 됐다.

고교 리그 최고의 빠른 발로 꼽히는 광주일고 내야수 정다운(우투좌타)도 김만수와 함께 kt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내게 됐다.

화순고 에이스 김정인(우투우타)은 넥센의 마운드를 책임지게 된다. 김정인이 프로 무대에 뛰어들게 되면서 SK 투수 김정빈과 함께 형제 야구인으로 활약하게 됐다.

근성있는 야구로 각 구단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끄는 지역출신 선수들. 지난해에는 2차 1라운드에서 진흥고 에이스 하영민이 넥센,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이 SK, 건국대 졸업을 앞둔 동성고 출신 문동욱이 롯데의 지명을 받았다. 또 KIA 내야수 고영우의 친동생인 동국대 투수 고영표(동성중-화순고)도 가장 먼저 kt의 지명을 받으며 무려 4명의 지역선수가 1라운드 자리를 차지했다.

정형식(삼성)의 친형인 진흥고 출신 투수 정영일은 SK, 효천고 박계범(내야수)·원광대 투수 배진선(동성고)은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멈춰선 ‘추 트레인’

왼쪽 팔꿈치 수술...ML 시즌 아웃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마지막 반전을 노렸지만 수술이라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 앞에 아쉽게 주저앉았다. 추신수는 25일(현지시간)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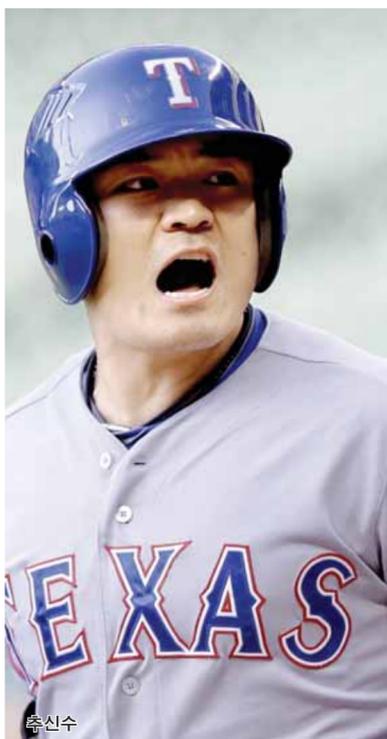
추신수는 소속팀인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과 올 시즌 후 왼쪽 팔꿈치를 수술하기로 지난 3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 지인에 따르면 지난 스프링캠프에서 추신수의 왼쪽 팔꿈치에 돌출된 뼈를 발견한 텍사스 구단은 이 뼈가 계속 자랄 것으로 보고 추신수와 협의해 시즌을 마치는 대로 제거 수술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범경기에서 통증 탓에 제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한 추신수는 수비할 때 송구에 어려움을 겪지만 타격할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에 아픔을 참고 정규리그를 맞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를 치를수록 팔꿈치는 더 나빠졌고 4월 중순 왼쪽 발목 부상까지 겹치면서 상·하체가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 올 시즌을 치렀다.

그 와중에 야수와 투수를 가릴 것 없이 연쇄 부상으로 주전들이 줄줄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추신수에게 실 팀은 돌아오지 않았다. 존 데이얼스 단장, 론 워싱턴 감독 모두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부상을 꼭 참고 뛰다가 마침내 부상자명단에 오른 추신수에게 찬사와 고마움을 아끼지 않았다.

텍사스가 ‘가을 야구’ 경쟁 대오에서 낙오하면서 추신수의 수술 시기는 최근에서야 결정됐다. 내년 도약을 위해 전력 구성 등 전반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데이얼스 단장은 어차피 남은 정규리그 경기가 추신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술 시기를 9월 초로 제안했다.

마침 추신수가 24일 심한 감기 증세로 결정하자 텍사스는 이날 그를 설득해 부상자명단 등재를 권유한 뒤 감기에서 회복하는 즉시 수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수술 후 재활까지 걸리는 시간은 8주다. /연합뉴스



추신수

다시 달리는 ‘괴물’

다음달 1일 샌디에이고전 등판 유력

오른쪽 엉덩이 중둔근과 이상근 염좌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마운드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9월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원정경기가 류현진의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의 에이전시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관계자는 26일 “류현진이 엉덩이 근육 통증에서는 거의 벗어났다. 충분히 쉬었고 몸 상태도 좋다”며 “9월 1일 샌디에이고전 등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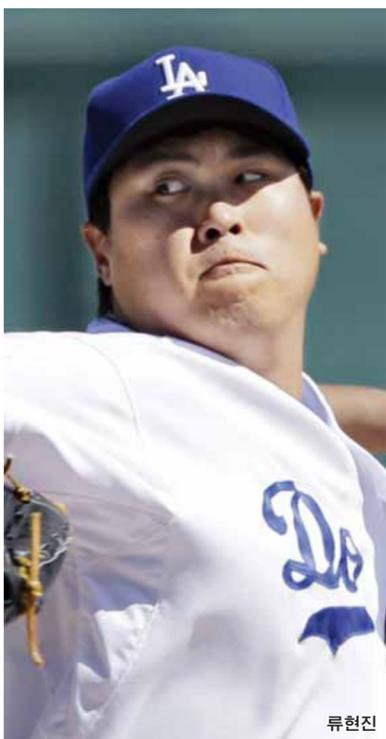
이 관계자는 “류현진이 최근 불펜에서 어느 정도 힘을 주며 공을 던졌고,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류현진은 애리조나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불펜피칭을 할 예정이다.

불펜피칭에서 구위를 점검하고, 구위에 문제가 없다면 류현진의 복귀일정이 확정된다. 이미 돈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이 마이너리그 재할 등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는 류현진이 자신감을 안고 맞설 수 있는 상대다. 류현진은 지난해와 올해 샌디에이고와 경기에 4차례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0.71로 무척 강했다. 펠트파크 원정 경기 성적은 2경기 1승 평균자책점 0.69였다.

1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회초 B.J. 업튼을 상대하다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자신 강판하고 보름 이상 실전을 치르지 않은 류현진으로서는 복귀전 상대가 편하면 편할수록 좋다.

다저스는 현지 시간으로 금·토·일요일에 샌디에이고와 3연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류현진